

HOME > Global > 북미

美 3조달러 인프라 투자...글로벌 증시에 호재일까

김지은 기자 승인 2021.03.23 15:18 댓글 0



NYT 보도 전해지며 뉴욕증시 상승 마감
캐터필러 등 인프라 투자 수혜주 강세
3조달러 재원 마련이 관건...증세시 주식시장엔 타격
공화당 반대 거세 증세 추진 쉽지 않다는 분석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보좌진이 3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이번주 중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3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법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통과되면서 투자자들은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동시에 대규모 재정 마련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이는 미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주식 시장의 불안요인이 되기도 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법안이 잇따라 제시되면서 투자자들은 이를 위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리고 그것이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3조달러 인프라 투자 법안 이번주 중 바이든에 보고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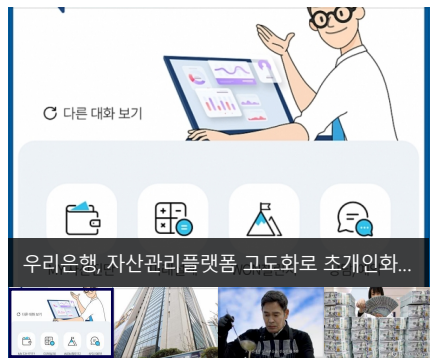
22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보좌진은 경기회복을 위해 3조달러(약 330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 3조달러 규모의 2개 법안은 이번주 중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첫번째 법안의 경우 인프라 개선, 청정에너지 기반 시설 구축, 5G 통신망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기고,

인기가사

- [재팬 리포트] '긴급사태' 해제 후폭풍, 코로...
- [이번주 환율] 美 바이든 대통령 부양책에 주...
- 바이든, 기후회의에 한국 포함 40개국 정상 ...
- 4 EMA "셀트리온 코로나 항체치료제, 중증위...
- 5 [글로벌 트렌드] 유럽, 폭발하는 코로나19에 ...
- 6 [IT통아보기] 구글 안드로이드 오류, 재발 방...
- 7 [차이나 리포트] 광풍처럼 몰아치는 반중(反...
- 8 [이번주분양] GS건설, '북수원자이렉스비아'...
- 9 [유통가 패트론] '회장님 말고 형'... 'MZ세대'...
- 10 [오늘의 글로벌마켓] 뉴욕증시, 경기 기대감...

포토뉴스



최신기사

- 우리는, 자산관리플랫폼 고도화로 초개인화 금융서비스 제공
- 우리금융, 국민참여정책형·그룹 자체 뉴딜펀드 출시

3조달러 규모는 당초 월가의 예상보다 큰 규모다. 앞서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월가 전문가들은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관건은 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느냐는 점이다. 이번달 들어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통과됐는데 국채발행을 통해 전액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이는 국채가격 하락, 즉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로 연결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의 가장 큰 불안요인이 된 바 있다.

주요 언론들은 3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위해서는 세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통해 일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15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역시 "부자와 법인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완수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낮췄던 법인세를 기존 21%에서 28%로 인상하고, 부자들을 대상으로 자본이득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증세를 위해서는 공화당의 지지가 필요한 점 등 여러가지 걸림돌이 남아있으나, 증세를 통해 3조달러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다면 주식시장은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인프라 법안 추진을 위한 증세는 미 주식에 일시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주가는 인프라 법안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고, 증세와 관련한 약간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투자 노트를 통해 설명했다.

데이비드 코스틴 수석 전략가는 "만일 법인세만 인상될 경우 S&P500 기업들의 2022년 수익은 약 3%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자본이득세가 인상될 경우 주식시장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인 자본이득세를 최고 39.6%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코스틴 전략가는 "과거 자본이득세 인상은 주식 배분 감소, 주가 하락 등을 이끌었던 바 있다"고 설명했다.

JP모건은 "인프라 투자를 위해 증세에 나서는 것은 코로나19 부양책을 위해 국채를 발행했던 것에 비하면 주식시장의 압박이 훨씬 덜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기업 이익과 주식 매수세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를 전하며 "증세와 관련해 세부 사항들이 어떻게 정해질지 불확실한 만큼 이는 잠정적인 분석일 뿐"이라며 "현재 공화당 의원들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세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장비 관련주 움직임 돋보여...친환경 관련주 강세 이어질 듯

주식시장이 보인 반응은 긍정적이다. 3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 구상 소식이 전해진 22일 뉴욕증시는 상승세로 마감했다.

특히 장중 하락세를 보이던 캐터필러가 상승세로 방향을 트는 등 중장비 관련주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중장비 관련주 및 소재 업종들은 인프라 투자가 실시될 때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들이다.

일각에서는 월가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이미 인프라 투자 법안을 상당부분 반영해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유세현장에서 "고속도로와 교량, 공항 등을 재설비하고 친환경 주택건설, 광대역통신 확충, 전기차 사용을 위한 시설마련 등에 4년간 2조달러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미 분석가들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인프라 투자 수혜주 찾기가 한창이었다는 것이다.

마크 해켓 네이션와이드 투자 리서치 연구원은 "분석가들은 지난해 6월 이후 S&P500 기계업종의 2021년 예상실적에 대해 인프라 지출 시나리오를 반영해왔다"며 "이에 S&P500 전체 기업의 2021년 예상 실적이 6% 늘어난 반면 기계업종은 2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주가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인프라 투자의 1차 수혜주로 꼽히는 기계업종은

- [유통가 패트론] '회장님 말고 형'...'MZ세대'와 소통 나선 기업 총수들



- [이변주 환율] 美 바이든 대통령 부양책에 주목...달러 원 1110~1140 예상



- [이변주분양] GS건설, '북수원자이렉스비아'등 전국 6491가구



- [차이나 리포트] 광둥처럼 몰아치는 반중(反...) 기업 '불매운동'



- [강대호의 책이야기] 대한민국, 이제는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올라서야 할 때




재료 관련주 역시 95% 급등해 S&P500의 상승폭을 웃돌았다.

엘리자베스 버밀리언 CFRA 주식 분석가는 "친환경적 성향을 보이는 기업들은 인프라 투자의 혜택이 기대되는 업종 속에서도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존 35%의 법인세를 21%로 낮췄던 트럼프 행정부 당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기업들은 증세가 현실화될 경우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해켓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감세 정책의 최대 수혜업종이었던 유틸리티와 통신주 등은 법인세가 인상될 경우 가장 큰 역풍을 예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지은 기자 jekim@opinionnew.com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자동댓글방지

723943



0 / 400

 등록